

아날로그 감성으로 옛 추억을 소환하다

ACC서 만나는 거대 비디오 가게 '원초적 비디오 본색'...내년 2월19일까지 복합전시 5관

국내 최초 2만5천개 비디오테이프 전시

전시 연계 영화감독·배우·평론가 대담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그 과도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비디오테이프는 어느덧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 영화를 논할 때 '비디오테이프' 관련 유산은 무시할 수 없다. 비디오 산업의 호황기가 영화 전문잡지와 영화애호가(씨네필)의 등장, 대기업 자본에 의한 초대형(블록버스터) 영화 제작, 영화의 학문제도 편입 등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 산업의 생산자 혹은 수용자들은 비디오를 밀접하게 접한 세대로 비디오테이프(VHS)를 통해 영화를 향유하고 이해하며 또 수집하기도 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보고 싶은 영화 테이프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감상했던 향수를 자극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내년 2월19일까지 복합전시 5관에서 비디오테이프(VHS)를 소재로 한 복고풍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전시 소재의 신선함까지 더했다. 영화 비디오테이프를 소재로 한 전시는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국내 최하다. '원초적 비디오 본색'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화 '원초적 본능'과 '영웅본색'을



함쳐 만든 전시명이다.

2만5천개의 비디오테이프는 장르별, 연령별, 감독별로 구분해 전시했다. 그 시절 비디오 대여점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 실제 비디오테이프 감상도 가능하다.

실제 비디오테이프 외에도 비디오 시대의 명작 4편 '러브레터', '라뷰', '영웅본색',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실감콘텐츠로 새롭게 재편집해 상영한다.

옛 세대에겐 추억을,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에는 감성 공유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시의 내용과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전시 연계 행사로 작품 '일시 정지'가 상영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원태·임필성·정운철 영화감독, 모은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개막일인 2일 오후 3시에는 이화정 영화기자와 김정태 배우가 참여해 '나의 영화, 나의연기'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16일에는 '비디오 시대 인생영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세운 FM영화음악 진행자와 김초희 영화감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주성철 영화평론가·김영우 전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형석 영화평론가·봉만대 영화감독이 참여하는 대담이 차례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名人·名唱·名舞’의 향연

‘특별한 송년’...광주문예회관 12월 국악상설공연 ‘풍성’

광주문예회관 12월에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 마루에서 다채롭고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공연에 명인, 명창, 명무가 참여하는 송년 특집 공연이 준비됐다.

30일 광주문예회관에 따르면 먼저 오는 2일에는 타악그룹 '얼쑤'가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국악 고유의 마당 문화의 장점을 살려 연주자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관객과 소통하며 한바탕 어우러진다.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고유의 놀이와 연주로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3일에는 '예락'의 창작음악극 '조선수군재건 난세의 영웅'이 펼쳐진다. '난세의 영웅'은 1597년 3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명량해전 한 달 전, 수군재건에 나섰던 이순신의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열흘간의 보성지역 일정을 그려낸 가·무·악 음악극이다.

10일에는 '소리화'가 창곡 '춘향전'을 준비했다. 소리화의 춘향전은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가·무·악을 재미있고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국악의 멋에 흠뻑 빠져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과 퓨전을 넘나들며 색다른 춘향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22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MERRY! 클



광주문예회관 국악상설공연 모습.

쓰 마쓰' 공연을 선사한다. 1부는 전통 국악 공연으로 가야금병창, 기악합주 등 다양한 전통국악공연을, 2부에서는 퓨전국악 공연을 펼친다. 특히 2부 공연에서는 JTBC 풍류대장 세미파이널 진출자 임재현과 그의 프로젝트밴드인 산귀남 밴드가 협업으로 공연한다.

이밖에도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국악을 주제로 특색 있는 공연과 명인·명창·명무와 함께 명품국악공연을 준비해 관객을 만난다.

자세한 일정 및 예매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광주시립극단 제2회 창작 희곡 공모

정범중 '섬 옆의 섬' 당선

광주시립극단 제2회 창작 희곡 공모에 정범중(사진) 작가의 '섬 옆의 섬'이 당선됐다.

광주시립극단은 지역 소재 이야기거리를 발굴, 시립극단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희곡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섬 옆의 섬'은 목포 출신 극작가 김우진과 '사의 참미' 작곡가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 에피소드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다도해 주민들이 지금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적확하고 타당한 인물 구성, 현실감 있고 유니크한 성격(캐릭터)들, 절제된 대사와 적절한 반전으로 문학성과 연극성을 획득했다"며 "공연 가능성과 문학적 성취를 이룬 '섬 옆의 섬'을 당선작으로 결정한다"고 평했다.

정범중 작가는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새연'으로 등단했으며 5·18



기념재단 희곡우수상, 제주4·3 평화문학상,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봄날의 새연', '칼과 학', '큰일 한

생쥐' 등이 있다.

정 작가는 "당대의 이야기 못지않게 지역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생각에서 광주·전남을 배경으로 '섬 옆의 섬'을 썼다"며 "희곡은 씨앗이고 무대는 텃밭이며 배우와 연출가는 농사꾼이라고 여겨왔다. 제가 뿌린 이 씨앗이 광주시립극단의 텃밭에서 여러 배우와 연출가에 의해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선작 '섬 옆의 섬'은 2023년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브레이킹, 국악과 만나다

크리에이터그룹 무버 '메리고라운드'...3-4일 ACC 극장2 2일에는 일반인 대상 '댄스 워크숍',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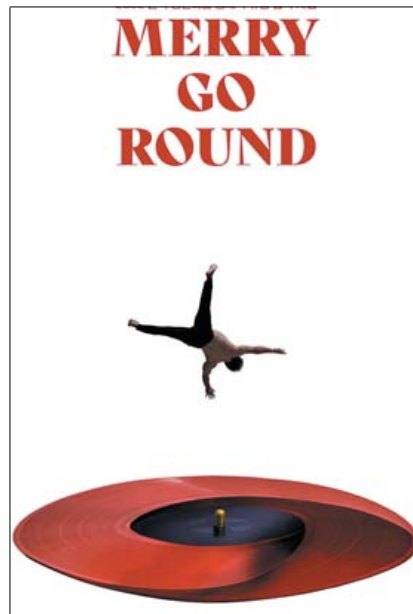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닮아있는 '춤'을 발견하게 된다.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바늘이 내려와 닿는 곳은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가 내려와 닿는 곳은 어떤 춤을 들려주게 될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ACC재단)은 크리에이터그룹 무버(MOVER)의 2022년 신작 '메리고라운드'를 오는 3-4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작 유망 협력사업 선정작이다.

'메리고라운드'는 회전목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힙합 장르에서는 두 개의 턴테이블을 활용해 노래의 간주(브레이크)를 반복하는 디제잉 기술을 말한다.

현대무용가인 김설진 예술감독이 제작을 맡은 이번 공연은 비보잉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 콘텐츠다. 공연에서는 '기쁨', '슬픔', '성취', '허무'로 반복하는 이질적 감정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공연에 앞서 2일에는 일반인도 쉽게 브레이킹을 접해볼 수 있는 '댄스 워크숍'을 진행



한다.

'메리고라운드'는 3-4일 오후 5시 총 2회 공연하며,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수협생 등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사모집

카메라

전문 수리 기술자 모심

마스타 레벨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특별우대
정규직 급여 상담 후 결정



문의전화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